



조건 제 8117 호 대표전화 062-370-700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음력 5월 17일)

## ‘한뿌리’ 전남광주 통합의 시대 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하면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과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두 지역은 다시 하나의 광역정부로 통합됐다.

전년을 한 뿌리로 이어온 전남과 광주는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새 출발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축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행정구역 하나가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초의 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 광역통합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시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의 권한도 크게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와 함께 국무회의의 참석 권한을 부여받는다.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의 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시장 체계도 확대되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일부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핵심 권한도 단

320만 메가시티...서울시 준하는 위상·장관급 특별시장 정부,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AI·반도체 성장축 육성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선택한 광역통합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자주 발전 전략의 첫 실험이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은 그동안 산업과 생활권은 사실상 하나였지만 행정은 둘로 나뉘어 투자 유치와 국가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효율을 겪어왔다. 이번 통합으로 행정과 산업, 재정과 정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통합특별시는 전국 다섯 번째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이자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 경제 규모를 갖춘 초광역 도시로 재편된다.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문화콘텐츠 산업과 전남의 재생에너지·농수산·해양·우주항공 자원이 하나의 전략 아래 결합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전국

적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스스로 투자와 개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한층 커지게 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다.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특별지원 등을 통해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지만,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이 같은 규모의 국가 지원이 추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와 에너지, 문화, 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는 미래산업이다. ▶2면으로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오늘 출범 ▶기획특집 4~10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와 기업의 MOU 체결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훈식 비서실장,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안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재명 대통령,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삼성전자·SK하이닉스·앰코 등 896조 반도체 투자 확정

##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

### 서남권 첨단산업 비전 보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지역에 896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도약한다. ▶관련기사 3면

세계적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기업인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 또한 광주에 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정부는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남광주가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서남권 투자 계획과 정부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코는 기업별 서남권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삼성엔 425조원을 호남에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한다.

두 기업은 반도체 메모리 팹 건설 등에 총 800조원을 투자하고, 데이터센터와 컴



### 반도체·AI 데이터센터 구축...정부·기업 MOU 체결

### 정부,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지원·행정적 집중

### 이재명 “통합시 출범 축하...사업 추진 직접 챙기겠다”

퓨팅센터 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엔코는 1조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을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여건 조성 등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해 서남권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전남광주를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한다.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아 원활한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맴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고 팹 가동을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도 신속히 구축한다.

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글로벌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 기업인 영국 암(Arm)과 손잡고 설립한 ‘암 스텔’,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 방안과 세부 투자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반도체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남권을 매력적인 투자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재정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 각종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해 기업 투자와 인력의 지방 거주를 촉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영역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전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통과 주거, 여가 등 정부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팹 구축에 따른 기업형 첨단도시 선도 모델도 조성한다.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 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첨단도시와 호남 고속철도·간선고속도로, 무인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간 연결성도 강화하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도시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7월 1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합니다!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성장통합 / 균형통합 / 시민주권 / 녹색도시 / 기본소득